

# 위스타트(We Start)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수용·표현 언어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the We Start Language Intervention Program on the Improvement of Children's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Abilities in Multi-Cultural Families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방 소 영  
교 수 황 혜 정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So Young Bang

*Professor* : Hye Jung Hwang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urrent language level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 and whether the language level of these children would be increased after participating in the 'We Start Language Intervention Program'. The subjects were 30 36-75-month old children attending daycare centers in Ansan city, South Kore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ceptive and expressive language level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re low compared to those of other children, and that their expressive language level was evaluated more negatively than their receptive language level. After participating in the 'We Start Language Intervention Program', language test scores, language age and language percentile rank were all increased. It was also found that the developmental language level of multi-cultural children increased, and that of the children that had a language delay or language disorder decreased.

**주제어(Key Words)** :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ies), 언어능력(language ability),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  
(We Start language intervention program)

## I.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했으며, 농촌 청년 장가보내기 운동으로 결혼이주여성 역시 급증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역시 가족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해 이루어진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해 이룬 가정이나 본국에서 결혼한 외국인 가족이 함께 국내에 이주해 온 경우, 그리고 북한에서 입국해 한국인이나 외국인과 결혼한 새터민 가족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2007). 교육과학기술부(2010a)는 국제결혼이민자 수가 지난 5년간 약 3배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국제결혼가정의 초·중·고 자녀의 수는 2006년도에 7,998명이었고, 2007년에는 13,445명으로 약 2배로 증가했다.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도 통계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의 학령기 자녀의 수는 30,040명으로 4년 전에 비해 4배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학령기 자녀 역시 2006년에는 1,391명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1,748명으로 증가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또한 2009 보건복지백서에 의하면 2007년 결혼이민자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는 총 44,000명, 2008년에는 58,000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103,48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만을 대상으로 했거나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자녀를 포함한다면 그 수치는 훨씬 커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성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과 같은 제도적·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오소정, 김영태, 김영란, 2009; 황상삼, 정옥란, 2008)들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다른 외형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을 받고 있으며 정체성의 훼손으로 갈등에 직면하기도 한다(김갑성, 2006). 다문화가정의 유아 역시 또래유아와 놀이를 하는데 있어서도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박미경, 2007),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윤갑정, 고은경, 2006). 또한 이들은 전반적으로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격적 성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구효진, 2009)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언어·지적 및 학습·사회정서 면에서 교사들의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으며, K-ABC를 이용해 이들의 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집단과 비교해 순차처리 및 습득도가 낮았다(구효진, 최진선, 2007).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지연된 발달은 언어발달의 지체와 관계가 있는데, 언어능력이 지체된 다문화가정 유아는 학습적인 부분과 지적 능력에서도 어려움을 보이며(김경숙, 안은영, 이영선, 2008), 인지적 영역·사회적·정서적 영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구효진, 2009)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을 비교하여 살펴본 강금화(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음운인식능력이 낮고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은희(2004)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언어능력을 알아본 결과, 또래에 비해 언어능력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유아가 30%였고, 이들 중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언어이해 능력이 더 지체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을 관찰한 박나현(2011)은 아동이 2학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이해와 표현이 서툰 등 언어능력 부진으로 수업에도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특이한 행동으로 또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의 40%정도가 의사소통에 있어 문제를 지니고 있었고(여성가족부, 2007), 학교부적응이나 부적절한 또래관계 역시 원활한 언어전달 및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언어능력과 다른 발달 능력 간에 연관이 없거나 언어능력이 다른 능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영향력이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고 보고하는 연구(Ekstrand, 1976; Taft, 1977)도 있다.

상반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실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되어지고 있으며 개인으로서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다양한 성격과 환경을 고려해 이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은 미흡하며, 이들은 다문화화적 요소가 배제된 일반 교육현장에서 이들의 요구가 무시당한 채 일반화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을 더욱 소외시키며, 이들의 전반적인 발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의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들이 조합된 다문화가정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또한 그 적용 결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닦아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수용·표현언어 검사를 실시하고 위스타트 교육사업의 일환인

그림책을 이용한 언어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중재프로그램을 이용한 언어능력 향상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스타트(We Start) 운동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복지와 교육, 건강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제공해 삶의 동등한 출발선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2004년 각계의 동참 속에 시작되었다(www.westart.or.kr, 2011). 빈곤가정 유아의 느린 인지 발달, 신체발달, 적응능력 등은 성숙적 요인이 아닌 환경적 자극의 부족이라고 보는데, 빈곤가정의 부모들이 유아의 성공적인 성숙을 위한 지원 동기 및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유아는 성격형성이나 발달에 있어서 장애를 겪으며, 자기보호 능력이나 미래계획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극도의 현실주의에 사로 잡혀 힘든 작업을 회피하거나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쉽게 된다(Alexander & Entwisle, 1988; McLoyd, 1998). 위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발달을 강화하도록 계획된 일련의 교육적 활동인 교육중재를 실시하게 되는데, Ramey와 Ramey(1992)는 교육중재의 목적이 가정에서 적절한 자극을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의 부족한 지적 발달을 예방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특히 조기교육중재란 유아가 공교육을 받기 이전 시기에 보완적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체계적이며 의도적인 시도를 의미하는데(Ramey & Ramsey, 1992, 2006), 유아의 인지적, 언어적 능력을 증진시키고 교육적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Ramey & Ramey, 2006).

그림책읽기 언어중재 프로그램(김명순, 정미라, 배선영, 2006)은 우리나라 저소득층 가정 유아의 상황에 맞게 구성된 위스타트 운동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박찬화(2010)의 연구에서는 그림책 읽기 언어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유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아들보다 인쇄물 개념, 읽기 유창성 검사, 구어적 읽기 이해력 검사 등에서 유의하게 높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그림책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은 유아의 언어발달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김정규, 정남미, 1997; 윤경선, 2006; 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현은자, 1997; 이경화, 1999)도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가 처한 상황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저소득가정 유아가 경험하는 일시적 혹은 지속적인 경제적, 교육적 빈곤은 다문화가정 유아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저소득가정 유아가 경험하는 성격형성 문제나 기타 발달 문제 역시 다문화가정 유아에게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림책을 이용한 언어중재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 수용언어와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 실시 전 다문화가정 유아의 수용·표현 언어능력의 수준을 알아보고, 또래 유아들과 차이가 있는지를 검사구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언어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에게 다시 언어검사를 실시하고 변화의 정도를 비교해봄으로써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언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수용·표현 언어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 참여 이후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수용·표현 언어수준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가 실시한 ‘다문화가족 유아 교육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시립어린이집 4곳과 민간어린이집 5곳 총 8곳의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36-75개월의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 언어검사에 참여한 유아는 35명이었으나 프로그램 진행 중 개인적인 사유로 퇴소를 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결석중인 유아의 경우 사후 언어검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5명의 유아를 제외한 30명의 유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남아 17명(56.7%)의 평균연령은 59.4(SD 10.9)개월이었으며 여아 13명(43.3%)의 평균연령은 55.4(SD 12.4)개월로 전체 평균 연령은 57.7(SD 11.5)개월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연구에 참여한 유아가 속한 가정의 유형은 결혼이주민 가정이 26가구(86.7%)였으며 이주민 노동자가정이 4가구(13.3%)였다. 유아의 아버지의 출신국은 인도 2명(6.6%), 파키스탄 2명(6.6%), 중국 1명(3.3%)이 있었으며 나머지 25명(83%)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중국13명(40%), 베트남 6명(20%), 필리핀 5명(16.6%), 인도 3명(9.9%), 일본 1명(3.3%) 순이었으며, 한국인 어머니는 3명(9.9%)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1〉 대상유아의 성별에 따른 생활연령

	평균연령(SD)	36~48개월	49~60개월	61~72개월	72개월 이상	단위: 명(%)
남아	59.4(10.9)	4(13.3%)	5(16.7%)	7(23.3%)	1(3.3%)	17(56.7%)
여아	55.4(12.4)	5(16.7%)	4(16.7%)	2(6.7%)	2(6.7%)	13(43.3%)
전체	57.7(11.5)	9(30.0%)	9(30.0%)	9(30.0%)	3(10.0%)	30(100.0%)

〈표 2〉 대상유아의 부모 출신국 및 분포

	한국	인도	중국	파키스탄	베트남	일본	필리핀	단위: 명(%)
부	25(83.0)	2(6.6)	1(3.3)	2(6.6)	-	-	-	30(100.0)
모	3(9.9)	3(9.9)	12(40.0)	-	6(20.0)	1(3.3)	5(16.6)	30(100.0)

2. 연구도구

1)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사소통문제가 심각함에 비해 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인 위스타트 교육사업에서 시행되었던 그림책 읽기 언어중재 프로그램(김명순, 정미라, 배선영, 2006)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책읽기 언어중재 프로그램은 2005년에 52주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고 2006년부터 일 년에 한차례씩 개발되어 실시되었다. 그림책 읽기 중재프로그램은 유아의 발달적 수준에 적합하고 문화적으로 친숙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유아의 언어와 인지발달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도록 하며 그림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읽는 즐거움을 늘려 가는데 목표를 두었다(김명순, 배선영, 2007). 더 나아가 그림책읽기 언어중재 프로그램은 그림동화책을 통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지체된 어휘능력·문장구성능력·개념발달을 돕고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특징(박찬화, 2010)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읽기 언어중재 프로그램을 훈련받은 중재교사가 주 1회씩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유아를 3~6명의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2주 단위로 1권의 그림책을 주제로 하여 한 주는 그림책 읽는 활동을 하고 그 다음 주는 그림책을 이용한 관련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림책읽기 중재프로그램의 관련교육활동은 언어, 수, 과학, 조형, 기본생활습관 영역에 속하는 활동을 유아의 수준에 맞게 진행하게 된다. 1회기 활동은 30~40분 동안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에 사용된 그림책은 해당 유아 부모의 국적이 맞게 모국어로 작성된 안내문과 함께 각 가정으로 보내져 유아와 부모와 함께 그림책을 읽게 하여 양육자의 참여를 도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읽기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유아에게도 효과적인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적합한 26개의 활동(13 주제) 및 마무리 활동(1회기) 포

함 27주의 프로그램을 임의적으로 선별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적합한 그림책 및 활동을 선별하는데 있어 언어, 수, 과학, 조형, 기본생활습관 관련 활동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였으며, 계절 및 생활환경에 적합하게 순서를 조절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 측정 도구

(1)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김영태, 성태제, 이윤경, 2003)는 만 2세~만 6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도구는 수용언어 영역을 측정하는 45개 문항과 표현언어를 측정하는 문항 45개 총 9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인지개념 및 의미론적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41개(44.1%), 조음 및 구문론적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37개(39.8%), 화용론적인 언어능력 측정 문항 14개(16.1%)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언어 영역과 표현언어 영역은 각 15개의 언어발달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세 6개월에서 4세까지는 3개월 간격으로 나뉘어져 있고, 4세 1개월에서 6세 6개월까지는 6개월 간격으로 나뉘어져 있다.

검사는 수용언어검사 영역부터 실시하며, 대상자의 생활연령에 해당하는 연령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에서 시작한다. 각 연령단계에서 세 문항 모두 ‘4’를 받은 기초선이 확립된 이후 처음으로 ‘3’가 두 개 이상 나타난 연령단계를 한계선으로 보고 평균연령으로 산출한다. 아동의 언어수준을 언어점수와 언어연령 그리고 백분위(%ile)로 평가하고 생활연령과 유아의 언어연령의 차이 정도에 따라 언어발달 지체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또한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에서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을 판정하는 기준은 유아의 취득한 언어연령이 생활연령보다 12개월~24개월 이상 차이가 나면 약간언어발달지체, 24개월 이상 차이가 나면 언어발달장애로 판정한다. 본 검사의 내적일치성 신뢰도는 수용언어연령 .78, 표현언어연령 .92로 나타

났다(김영태, 성태제, 이운경, 2003).

(2)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는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 성인의 수용어휘능력과 표현어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검사 도구는 명사 98개(53.0%), 동사 68개(37.0%), 형용사 및 부사 19개(10.0%) 등의 수용어휘 문항 185개(100%)와 명사 106개(57.3%), 동사 58개(31.3%), 형용사 및 부사 21개(11.4%)의 표현어휘 문항 185개(100%) 총 27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표현어휘 검사를 먼저 실시하는데 생활연령에 따른 시작문항을 결정하고 기초선을 찾는다. 기초선이 확립되면 8개 문항 중에서 6개를 틀리는 문항을 최고한계선으로 하여 검사를 멈추고 표현어휘검사에서 설정된 기초선을 기준으로 수용어휘검사를 실시한다. 각 문항은 1점씩 배점하고 원점수에 따른 등가연령 및 백분위 점수를 산출한다. 또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는 유아가 취득한 언어연령이 1표준편차~2표준편차 보다 낮으면 약간지체(유의요망), 2표준편차 미만은 어휘능력발달지체로 판정하는데, 각 연령에 따라 표준편차가 다르게 적용된다. 본 검사의 학령전기 연령집단의 재검사 신뢰도는 수용언어 .84, 표현언어 .89였으며, 반분신뢰도는 수용언어 .94, 표현언어 .95였다(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3) 측정도구 선정 이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와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가 공통적으로 피검사자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능력을 측정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검사도구를 모두 사용한 것은 두 개의 검사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언어능력내용, 측정방법, 평가방법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지개념 및 의미론, 조음과 구문론, 화용론 등의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반면,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는 유아가 알고 있는 어휘의 개수로 언어능력을 측정하며 보다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언어능력을 판별하는 기준도 상이하다. 이처럼 다른 특징을 가진 두 개의 언어검사 도구를 이용해 언어수준을 살펴본 것은 유아의 언어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보다 나은 정확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이유는 본 연구에서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규준점수를 통해 실험집단의 점수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규준점수를 가진 표준화된 연구도구

를 선정하였으며, 검사결과 비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종류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시립어린이집 3곳과 민간어린이집 5곳 총 보육시설 8곳을 선정하여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실시되었다. 먼저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 및 언어검사 실시에 대해 보육시설 시설장과 교사 및 대상 유아 부모의 동의를 구하였다.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일주일 동안 사전 언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를 먼저 실시하고 이를 후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를 실시하였다. 이후 27주 간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사전 언어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사후 언어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대상유아의 사전 수용·표현 언어 발달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와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VT)를 실시하였다. 두 검사는 모두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원점수, 언어연령, 언어백분위를 제공하는데, 원점수란 각 유아가 맞힌 문제의 개수에 비례하여 취득한 점수이며, 언어연령은 유아의 언어점수가 어느 연령대에서 보여지는 수준인지 환산하여 나타낸 수치이다. 언어백분위는 동일한 또래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유아의 언어점수가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설명하는 수치이다. 원점수, 언어연령, 언어백분위는 한 유아의 언어수준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내포된 의미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는 비교집단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의 경우 원점수, 언어연령, 언어백분위를 모두 제시해 유아의 언어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의 경우 원점수와 언어백분위를 연령별 규준집단과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결과 분석에 있어 언어검사 원점수, 언어연령, 언어백분위의 사전·사후 비교는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판정 결과의 사전·사후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해 McNemar 검증하였다.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의 판정결과는 정상발달과 약간언어발달지체, 언어발달장애로 구분되는데 이를 정상발달과 발달지체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며,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VT) 역시 정상발달, 약간지체, 어휘능력발달지체로 나누어지는 판별기준을 McNemar 검증을 위해 정상발달과 발달지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언어중재 프로그램 실시 전 수용·표현 언어 검사결과

##### 1) 사전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검사 결과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유아의 수용·표현 언어수준을 살펴본 결과(〈표 3〉 참조),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일반 한국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유아 30명의 평균 생활연령은 57.7(11.5)<sup>1)</sup>개월이었으며,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는 48.2(12.5)점, 표현언어 평균원점수는 43.1(13.1)점으로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보다 표현언어 평균원점수가 약 5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언어 평균언어연령은 50.8(12.0)개월, 표현언어 평균언어연령은 44.9(13.7)개월로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생활연령보다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발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언어연령보다 표현언어연령은 약 6개월 정도 더 낮았다. 또래와 비교하여 이들의 언어발달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측정하는 백분위의 수치를 살펴보면 평균 수용언어 평균백분위 24.3(24.0)%ile, 표현언어 평균백분위 9.3(9.8)%ile로 중간치보다 낮으며 표현언어 평균백분위는 10%ile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언어연령을 기준으로 언어능력을 판정한 결과(〈표 4〉 참조), 수용언어의 정상발달 범위에 속하는 유아는 22명(73.4%)이었고, 12개월 이상 지체되어 약간언어발달지체 수준에 속하는 유아는 7명(23.3%)이었으며, 24개월 이상의 지체를 보여 언어발달장애 수준의 유아도 1명(3.3%)이었다. 표현언어의 경우 정상발달 범위에 속하는 유아는 17명(56.7%)이었고, 12개월 이상 지체되어 약간언어발달지체 수준에 속하는 유아는 9명(30.0%)이었으며, 나머지 4명(13.3%)의 유아는 24개월 이상의 지체를 보이는 언어발달장애 판정수준에 속했다. 즉, 26.6%에 해당하는 유아가 수용언어영역에서, 43.3%의 유아가 표현언어 영역에서 언어발달 지체 혹은 언어발달장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언어보다 표현언어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사전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결과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를 이용해 다문화가정 유아의 수용·표현 언어수준을 살펴본 결과(〈표 5〉 참조),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일반 한국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들의 어휘력점수를 살펴보면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는 44.8(21.9)점으로 기준점수 46.4(11.6)점보다 2.4점 낮았으며, 표현언어 평균원점수는 45.9(20.3)점으로 기준 55.4(9.1)점보다 9.5점 낮아, 수용어휘

〈표 3〉 사전 PRES 수용·표현언어 검사결과

성별	사례수	평균월령 (SD)	수용언어			표현언어		
			점수 (SD)	개월 (SD)	%ile (SD)	평균점수 (SD)	개월 (SD)	%ile (SD)
남	17	59.4 (10.9)	47.5 (12.8)	51.4 (11.5)	20.5 (17.1)	43.1 (14.8)	45.9 (16.0)	10.0 (10.0)
여	13	55.4 (12.4)	49.2 (12.7)	50.1 (13.2)	29.2 (29.1)	43.1 (11.1)	43.6 (11.0)	8.5 (9.9)
전체	30	57.7 (11.5)	48.2 (12.5)	50.8 (12.0)	24.3 (24.0)	43.1 (13.1)	44.9 (13.7)	9.3 (9.8)

〈표 4〉 사전 PRES 수용·표현언어검사 판정결과

성 별		정상발달			약간언어발달지체	언어발달장애	계
		0-5개월 높음	6개월 미만지체	6-11개월 지체	12개월~23개월 지체	24개월 이상지체	
수용 언어 (%)	남	3(17.6)	5(29.4)	5(29.4)	4(23.5)	0(-)	17(100.0)
	여	3(23.1)	4(30.8)	2(15.4)	3(23.1)	1(7.7)	13(100.0)
	합	6(20.0)	9(30.0)	7(23.3)	7(23.3)	1(3.3)	30(100.0)
표현 언어 (%)	남	1(5.9)	4(23.5)	4(23.5)	5(29.4)	3(17.6)	17(100.0)
	여	1(7.7)	3(23.1)	4(30.8)	4(30.8)	1(7.7)	13(100.0)
	합	2(6.7)	7(23.3)	8(26.7)	9(30.0)	4(13.3)	30(100.0)

1) 이하 평균치 다음의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력보다 표현어휘력수준이 일반유아와 비교했을 때 더 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수용언어 평균백분위는 51.3(26.1)%ile이었으며 표현언어 평균백분위는 47.3(24.9)%ile로 중간치에 근접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유아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기준집단과 비교해보면 42개월~47개월 유아의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는

27.5(16.0)로 기준점수보다 4.8점 낮았으며, 표현언어 평균원점수는 28.1(14.5)점으로 기준점수보다 12.7점 낮았다. 수용언어 평균백분위는 31.3(30.2)%ile이었으며 표현언어 평균백분위는 20.0(23.3)%ile로 나타났다.

48개월~53개월 유아의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는 27.7(22.1)점으로 기준점수보다 14.7점 낮았으며, 표현언어

〈표 5〉 사전 REVT 수용·표현 언어 검사결과

연령	성별	사 례 수	평균생활 연령(SD)	실험집단				기준집단			
				수용언어		표현언어		수용언어		표현언어	
				평균 원점수	평균 백분위	평균 원점수	평균 백분위	평균 원점수	평균 백분위	평균 원점수	평균 백분위
42 -47 개월	남	3	42.7 (1.2)	26.0 (23.5)	35.0 (36.1)	22.0 (21.1)	18.3 (23.1)	32.3 (9.72)	50	40.8 (10.5)	50
	여	5	42.6 (1.3)	28.4 (13.1)	29.0 (30.5)	31.8 (10.2)	21.0 (26.1)				
	합	8	42.6 (1.2)	27.5 (16.0)	31.3 (30.2)	28.1 (14.5)	20.0 (23.3)				
48 -53 개월	남	2	49.0 (1.4)	35.5 (24.7)	45.0 (56.6)	31.0 (31.1)	30.0 (35.4)	42.4 (11.2)	50	49.4 (9.5)	50
	여	1	52.0 (-)	52.0 (-)	15.0 (-)	5.0 (-)	15.0 (-)				
	합	3	50.0 (2.0)	27.7 (22.1)	31.7 (46.2)	28.0 (22.6)	21.7 (28.9)				
54 -59 개월	남	3	58.0 (1.0)	33.3 (20.5)	30.0 (35.0)	39.0 (17.1)	18.3 (15.3)	46.4 (11.6)	50	55.4 (9.1)	50
	여	1	59.0 (-)	64.0 (-)	95.0 (-)	56.0 (-)	45.0 (-)				
	합	4	58.3 (1.0)	41.0 (22.7)	46.3 (43.3)	43.3 (16.3)	25.0 (18.3)				
60 -65 개월	남	3	62.0 (2.6)	56.7 (9.1)	51.7 (35.1)	58.0 (2.64)	28.3 (15.3)	56.5 (9.0)	50	62.7 (8.6)	50
	여	4	61.5 (1.9)	52.5 (29.3)	61.3 (41.9)	50.5 (21.8)	37.5 (40.3)				
	합	7	61.7 (2.1)	54.3 (21.5)	57.1 (36.3)	53.7 (16.0)	33.6 (30.2)				
66 -71 개월	남	5	69.8 (0.8)	60.8 (9.5)	57.0 (34.2)	63.8 (5.6)	38.0 (22.8)	60.1 (8.4)	50	66.9 (7.7)	50
	여	0	- (-)	- (-)	- (-)	- (-)	- (-)				
	합	5	69.8 (0.8)	60.8 (9.5)	57.0 (34.2)	63.8 (5.6)	38.0 (22.8)				
72 -77 개월	남	1	75.0 (-)	60.0 (-)	69.0 (-)	66.0 (-)	75.0 (-)	70.1 (8.1)	50	74.2 (7.2)	50
	여	2	75.5 (2.1)	67.0 (5.75)	81.0 (8.5)	67.0 (9.9)	75.0 (17.0)				
	합	3	75.3 (1.5)	64.7 (5.7)	77.0 (9.2)	66.7 (7.0)	75.0 (12.0)				
전체	남	17	59.4 (10.9)	46.1 (20.3)	51.7 (23.6)	47.3 (21.3)	50.7 (23.0)	46.4 (11.6)	50	55.4 (9.1)	50
	여	13	55.4 (12.3)	43.2 (24.6)	50.9 (30.0)	44.1 (19.4)	42.8 (27.4)				
	합	30	57.7 (11.5)	44.8 (21.9)	51.3 (26.1)	45.9 (20.3)	47.3 (24.9)				

〈표 6〉 사전 REVT 수용·표현 언어능력 판정결과

	성별	정상발달	약간지체(유의요망) (-1SD ~ -2SD)	어휘능력발달지체 (-2SD 미만)	계
수용	남	9(52.9)	4(23.5)	4(23.5)	17(100)
언어	여	10(76.9)	1(7.7)	2(15.4)	13(100)
(%)	합	19(63.3)	5(16.7)	6(20.0)	30(100)
표현	남	11(64.7)	3(17.6)	3(17.6)	17(100)
언어	여	9(69.2)	3(23.1)	2(15.4)	13(100)
(%)	합	19(63.3)	6(20.0)	5(16.7)	30(100)

평균원점수는 28.0(22.6)점으로 기준점수보다 21.4점 낮았다. 그리고 수용언어 평균백분위는 31.7(46.2)%ile이었으며 표현언어 평균백분위는 421.7(28.9)%ile이었다.

54개월~59개월 유아의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는 41.0(22.7)점으로 기준점수보다 5.4점 낮았으며, 표현언어 평균원점수는 43.3(16.3)점으로 기준점수보다 12.1점 낮았고, 수용언어 평균백분위는 46.3(43.3)%ile이었으며 표현언어 평균백분위는 25.0(18.3)%ile로 나타났다.

60개월~65개월 유아의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는 54.3(21.5)로 기준점수보다 2.2점 낮고, 표현언어 평균원점수는 53.7(16.0)점으로 기준점수보다 9.0점 낮았다. 수용언어 평균백분위는 57.1(36.3)%ile이었으며 표현언어 평균백분위는 33.6(30.2)%ile이었다.

66개월~71개월 유아의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는 60.8(9.5)점으로 기준점수보다 0.7점 높게 나타나 사전 검사에서 유일하게 기준 집단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표현언어 평균원점수 63.8(5.6)점은 기준점수보다 3.1점 낮았다. 이들의 수용언어 평균백분위는 57.0(34.2)%ile이었으며 표현언어 평균백분위는 38.0(22.8)%ile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72개월~77개월에 속한 유아의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는 64.7(5.7)점으로 기준점수보다 5.4점 낮았으며, 표현언어 평균원점수는 66.7(7.0)점으로 기준점수보다 7.5점 낮았다. 이들의 수용언어 평균백분위는 77.0(9.2)%ile이었으며 표현언어 평균백분위는 75.0(12.0)%ile이었다.

유아의 언어점수를 각 연령별 기준과 비교하여 언어능력을 판정한 결과(〈표 6〉 참조), 수용언어의 정상발달 범위에

속하는 유아는 19명(63.3%)이었고, 1SD~2SD수준에 있어 약간언어지체를 보이고 유의를 요망하는 수준에 있는 유아가 5명(16.7%), 2SD 미만에 속하는 유아는 6명(20.0%)이었다. 표현언어의 경우 정상발달 범위에 속하는 유아는 19명(63.3%)이었고, 1SD~2SD수준에 있어 약간언어지체를 보이고 유의를 요망하는 수준에 있는 유아가 6명(20.0%), 2SD 미만에 속하는 유아는 5명(16.7%)이었다. 즉, 수용언어영역과 표현언어 영역에 언어발달 약간지체 혹은 어휘능력발달지체 수준인 유아가 각각 36.7% 것으로 나타났다.

2. 언어중재 프로그램 실시 후 수용·표현 언어 검사결과

1) 사후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검사 결과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 실시 후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검사를 실시한 결과(〈표 7〉 참조),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점수, 연령, 백분위 모두 증가하였다. 언어중재 프로그램 실시 후 다문화 가정 유아 30명의 평균 연령은 63.6(11.6)개월이었으며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는 58.5(11.5)점, 표현언어 평균원점수는 55.4(11.5)점이었다. 또한 수용언어 평균언어월령은 60.0(11.6)개월, 표현언어 평균언어월령은 57.0(14.1)개월이었으며, 수용언어 평균백분위는 46.0(32.4)%ile, 표현언어 평균백분위는 26.3(24.5)%ile이었다.

유아의 언어연령을 기준으로 언어능력을 판정한 결과(〈표 8〉 참조), 수용언어의 정상발달 범위에 속하는 유아는 27명

〈표 7〉 사후 PRES 수용·표현 언어 검사결과

성별	사례수	평균월령 (SD)	수용언어			표현언어		
			점수 (SD)	개월 (SD)	%ile (SD)	평균점수 (SD)	개월 (SD)	%ile (SD)
남	17	65.2 (11.0)	57.9 (12.5)	59.1 (13.4)	39.5 (33.1)	55.9 (13.7)	56.0 (17.0)	23.8 (28.9)
여	13	61.4 (12.5)	59.2 (10.4)	61.4 (8.9)	54.5 (30.5)	54.7 (8.3)	58.5 (9.1)	29.5 (17.8)
전체	30	63.6 (11.6)	58.5 (11.5)	60.0 (11.6)	46.0 (32.4)	55.4 (11.5)	57.0 (14.1)	26.3 (24.5)



〈표 8〉 사후 PRES 수용·표현 언어검사 판정결과

성별		정상발달			약간언어발달지체	언어발달장애	계
		0-5개월 높음	6개월 미만지체	6-11개월 지체	12개월~23개월 지체	24개월 이상지체	
수용 언어 (%)	남	7(41.2)	3(17.6)	5(29.4)	1(5.9)	1(5.9)	17(100)
	여	6(46.2)	4(30.8)	2(15.4)	1(7.7)	0(-)	13(100)
	합	13(43.3)	7(23.3)	7(23.3)	2(6.7)	1(3.3)	30(100)
표현 언어 (%)	남	4(23.5)	4(23.5)	4(23.5)	4(23.5)	1(5.9)	17(100)
	여	4(30.8)	4(30.8)	3(23.1)	2(15.4)	0(-)	13(100)
	합	8(26.7)	8(26.7)	7(23.3)	6(20.0)	1(3.3)	30(100)

(90.0%)이었고, 12개월 이상 지체되어 약간언어발달지체 수준에 속하는 유아는 2명(6.7%)였으며, 24개월 이상의 지체를 보여 언어발달장애 수준의 유아는 1명(3.3%)이었다. 표현언어의 경우 정상발달 범위에 속하는 유아는 23명(76.7%)이었고, 12개월 이상 지체되어 약간언어발달지체 수준에 속하는 유아는 6명(20.0%)였으며, 1명의 (3.3%) 유아는 24개월 이상의 지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 참여 후 정상발달수준에 속하는 다문화가정 유아는 증가하고 약간언어발달 지체 및 언어발달 장애 수준에 속하는 유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후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결과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를 이용해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 참여 이후 다문화가정 유아의 수용·표현 언어수준이 달라졌는지 살펴본 결과(〈표 9〉 참조), 언어점수와 평균등가월령, 백분위 모두 긍정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 어휘력점수를 살펴보면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는 56.5(18.4)점으로 기준점수 56.5(9.0)점과 일치했으며, 표현언어 평균원점수는 55.9(17.1)점으로 기준 62.7(8.6)점보다 6.8점 낮았다. 이들의 수용언어 평균백분위는 60.7(34.7)%ile이었으며 표현언어 평균백분위는 42.2(32.1)%ile이었다.

다문화가정 유아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기준집단과 비교해보면 42개월~47개월 유아의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는 43.5(10.6)점으로 기준점수보다 11.2점 높았으며, 표현언어 평균원점수 32.5(4.9)점으로 기준점수 40.8(10.5)점보다 8.3점 낮았고 수용언어 평균백분위는 87.5(17.7)%ile이었으며 표현언어 평균백분위는 17.5(3.5)%ile이었다.

48개월~53개월 유아의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는 43.2(22.0)점으로 기준점수보다 0.8점 높았으며, 표현언어 평균원점수는 42.3(16.2)점으로 기준점수보다 7.1점 낮았다. 이들의 수용언어 평균백분위는 58.3(42.6)%ile이었으며 표현언어 평균백분위는 40.0(38.2)%ile로 나타났다.

54개월~59개월 유아의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는 47.3(13.1)점으로 기준점수보다 0.9점 높았으며, 표현언어 평균원점수

는 44.7(12.4)점으로 기준점수보다 10.7점 낮았고, 수용언어 평균백분위는 53.3(38.2)%ile이었으며 표현언어 평균백분위는 31.7(46.2)%ile이었다.

60개월~65개월 유아의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는 52.6(21.3)점으로 기준점수보다 4.9점 낮았으며, 표현언어 평균원점수는 59.6(17.4)점으로 기준점수보다 3.9점 낮았다. 수용언어 평균백분위는 52.0(41.0)%ile이었으며 표현언어 평균백분위는 59.0(37.7)%ile로 나타났다.

66개월~71개월 유아의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는 61.0(15.2)점으로 기준점수보다 0.9점 높았으며, 표현언어 평균원점수는 59.5(13.0)점으로 기준점수보다 7.4점 낮았고, 수용언어 평균백분위는 66.7(44.3)%ile이었으며 표현언어 평균백분위는 40.8(29.1)%ile이었다.

72개월~77개월에 속한 유아의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는 70.0(1.6)점으로 기준점수보다 5.7점 높았으며, 표현언어 평균원점수는 70.8(5.4)점으로 기준점수보다 3.4점 낮았다. 이들의 수용언어 평균백분위는 55.0(3.7)%ile이었으며 표현언어 평균백분위는 36.0(13.9)%ile이었다.

마지막으로 78개월~83개월에 속한 유아의 수용언어 평균원점수는 75.7(8.1)점으로 기준보다 10.8점 낮았으며, 표현언어 평균원점수는 71.7(7.7)점으로 기준점수보다 4.2점 낮았다. 이들의 수용언어 평균백분위는 66.7(24.7)%ile이었으며 표현언어 평균백분위는 58.3(42.5)%ile이었다. 위와 같이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수용·표현 어휘력 점수, 등가연령, 백분위 등이 대부분 증가하였다.

유아의 언어점수를 각 연령별 기준과 비교하여 언어능력을 판정한 결과(〈표 10〉 참조), 수용언어의 정상발달 범위에 속하는 유아는 24명(80.0%)이었고, 1SD~2SD수준에 있어 약간언어지체를 보이고 유의를 요망하는 수준에 있는 유아는 2명(6.7%), 2SD 미만에 속하는 유아는 4명(13.3%)이었다. 표현언어의 경우 정상발달 범위에 속하는 유아는 21명(70.0%)이었고, 1SD~2SD수준에 있어 약간언어지체를 보이고 유의를 요망하는 수준에 있는 유아는 4명(13.3%), 2SD 미만에 속

〈표 9〉 사후 REVT 수용·표현 언어 검사결과

연령	성별	사 례 수	평균생활 연령(SD)	실험집단				기준집단			
				수용언어		표현언어		수용언어		표현언어	
				평균 원점수	평균 백분위	평균 원점수	평균 백분위	평균 원점수	평균 백분위	평균 원점수	평균 백분위
42 -47 개월	남	1	47 (-)	51.0 (-)	100.0 (-)	36.0 (-)	20.0 (-)	32.3 (9.72)	50	40.8 (10.5)	50
	여	1	46 (-)	36.0 (-)	75.0 (-)	29.0 (-)	15.0 (-)				
	합	2	46.5 (0.7)	43.5 (10.6)	87.5 (17.7)	32.5 (4.9)	17.5 (3.5)				
48 -53 개월	남	2	49.0 (1.4)	35.5 (41.7)	52.5 (67.2)	37.0 (31.1)	45.0 (56.6)	42.4 (11.2)	50	49.4 (9.5)	50
	여	4	49.0 (2.0)	47.0 (12.9)	61.3 (38.6)	45.0 (9.4)	37.5 (36.6)				
	합	6	49.0 (1.7)	43.2 (22.0)	58.3 (42.6)	42.3 (16.2)	40.0 (38.2)				
54 -59 개월	남	2	55.0 (1.4)	48.0 (18.4)	57.5 (53.0)	48.0 (15.6)	45.0 (56.6)	46.4 (11.6)	50	55.4 (9.1)	50
	여	1	58.0 (-)	46.0 (-)	45.0 (-)	38.0 (-)	5.0 (-)				
	합	3	56.0 (2.0)	47.3 (13.1)	53.3 (38.2)	44.7 (12.4)	31.7 (46.2)				
60 -65 개월	남	3	63.3 (1.2)	43.0 (22.3)	33.3 (40.7)	52.0 (18.5)	50.0 (45.0)	56.5 (9.0)	50	62.7 (8.6)	50
	여	2	64.5 (0.7)	67.0 (11.3)	80.0 (28.3)	71.0 (9.9)	72.5 (31.8)				
	합	5	63.8 (1.1)	52.6 (21.3)	52.0 (41.0)	59.6 (17.4)	59.0 (37.7)				
66 -71 개월	남	3	68.0 (2.6)	64.0 (10.8)	66.7 (45.4)	65.7 (6.1)	43.3 (18.9)	60.1 (8.4)	50	66.9 (7.7)	50
	여	3	68.7 (1.2)	58.0 (20.8)	66.7 (53.5)	53.3 (16.5)	38.3 (41.6)				
	합	6	68.3 (1.9)	61.0 (15.2)	66.7 (44.3)	59.5 (13.0)	40.8 (29.1)				
72 -77 개월	남	5	75.8 (0.8)	70.0 (1.6)	55.0 (23.7)	70.8 (5.4)	36.0 (13.9)	70.1 (8.1)	50	74.2 (7.2)	50
	여	0	- (-)	- (-)	- (-)	- (-)	- (-)				
	합	5	75.8 (0.8)	70.0 (1.6)	55.0 (23.7)	70.8 (5.4)	36.0 (13.9)				
78 -83 개월	남	1	81.0 (-)	71.0 (-)	50.0 (-)	65.0 (-)	15.0 (-)	86.5 (8.8)	50	75.9 (7.9)	50
	여	2	81.5 (2.1)	78.0 (9.9)	75.0 (28.2)	75.0 (7.1)	80.0 (28.3)				
	합	3	81.3 (1.5)	75.7 (8.1)	66.7 (24.7)	71.7 (7.7)	58.3 (42.5)				
전체	남	17	65.2 (11.0)	56.5 (19.7)	55.6 (36.1)	57.5 (17.3)	39.7 (29.0)	56.5 (9.0)	50	62.7 (8.6)	50
	여	13	61.4 (12.5)	56.45 (17.4)	67.3 (32.8)	53.8 (17.4)	45.4 (36.7)				
	합	30	63.6 (11.6)	56.5 (18.4)	60.7 (34.7)	55.9 (17.1)	42.2 (32.1)				

〈표 10〉 사후 REVT 수용·표현 언어능력 판정결과

	성별	정상발달	약간지체(유의요망) (-1SD ~ -2SD)	어휘능력발달지체 (-2SD 미만)	계
수용 언어 (%)	남	12(70.6)	2(11.8)	3(17.6)	17(100)
	여	12(92.3)	0(-)	1(7.7)	13(100)
	합	24(80.0)	2(6.7)	4(13.3)	30(100.0)
표현 언어 (%)	남	13(76.5)	2(11.8)	3(17.6)	17(100)
	여	9(69.2)	2(15.4)	2(15.4)	13(100)
	합	21(70.0)	4(13.3)	5(16.7)	30(100.0)

하는 유아는 5명(16.7%)이었다. 즉, 20%에 해당하는 유아가 수용언어영역에서, 34%의 유아가 표현언어 영역에서 언어 발달 약간지체 혹은 어휘능력발달지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상발달수준에 속한 유아는 증가하고 약간지체 혹은 발달지체 수준에 속하는 유아의 빈도는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3. 언어중재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수용·표현 언어 검사 결과 비교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검사의 원점수, 언어연령, 백분위를 사전·사후 비교하였으며,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의 원점수 및 백분위를 표준집단과 사전·사후 비교분석하였다.

#### 1) 수용·표현 언어검사 점수 및 백분위 비교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의 사전, 사후검사 차이를 살펴본 결과가 〈표 11〉에 제시되었다. 수용언어영역의 경우 사전검사 원점수는 48.2점, 사후검사 원점수는 58.5점으로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 참여 후 10.3점 증가하였으며 수용언어 사전검사 언어연령은 50.4개월, 사후검사 언어연령은 60.3개월로 9.9개월 증가하였다. 실제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약 6개월 동안 진행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유아의 언어연령은 물리적 시간 차이를 제외하고도 3.9개월 정도 더 증가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수용언어 백분위 역시 사전에는 24.2%ile, 사후에는

46.0%ile로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 참여 후 21.8%ile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언어영역의 경우 사전검사 원점수는 43.1점, 사후검사 원점수는 55.4점으로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 참여 후 12.3점 증가하였으며, 사전검사 언어연령은 44.7개월, 사후검사 언어연령은 57.0개월로 12.3개월 증가하였다. 표현언어연령 역시 유아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약 6개월의 물리적 시간을 제외하면 약 6.3개월 정도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전검사에서 표현언어 백분위는 9.3%ile였으며 사후검사에서 표현언어 백분위는 26.3%ile로 17.0%ile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 간 차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사전검사에서 수용언어에 비해 표현언어는 원점수 5.1점, 언어연령에서 5.7개월이 낮았으나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 참여 후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원점수의 차이는 3.1점, 언어연령의 차이는 3.3개월로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 간 차이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결과를 살펴보면 〈표 12〉 참조, 수용언어의 경우 사전검사 원점수는 44.8점으로 표준집단 46.4점보다 1.6점 낮았으나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 참여후 수용언어 원점수는 56.5점으로 표준집단의 원점수와 일치하였다. 수용언어의 백분위 역시 사전검사에서는 51.3%ile이었으나 사후 수용언어 백분위는 60.7%ile로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 참여 후 9.4%ile이 증가해 수용언어 원점수와 백분위가 모두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표현언어영역의 사전 원점수는 45.9점으로 표준집단 원

〈표 11〉 PRES 사전·사후 차이검증

	생활 연령	수용언어			표현언어		
		원점수	언어연령	백분위	원점수	언어연령	백분위
사전검사	57.7	48.2	50.4	24.2	43.1	44.7	9.3
사후검사	63.6	58.5	60.3	46.0	55.4	57.0	26.3
차이	5.9	10.3	9.9	21.8	12.3	12.3	17.0

〈표 12〉 REVT 사전·사후 차이검증

	평균	실험집단				규준집단			
		수용언어		표현언어		수용언어		표현언어	
		원점수	백분위	원점수	백분위	평균 원점수	평균 백분위	평균 원점수	평균 백분위
사전검사	57.7	44.8	51.3	45.9	47.3	46.4	50	55.4	50
사후검사	63.6	56.5	60.7	55.9	42.2	56.5	50	62.7	50
차이	5.9	11.7	9.4	10.0	-5.1	10.1	.0	7.3	.0

점수인 55.4점보다 9.5점 낮았고 사후 원점수는 55.9점으로 규준집단의 원점수 62.7점보다 6.8점 낮아 사전검사의 차이보다 줄어들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표현언어영역의 백분위는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 결과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후 언어표현 능력은 사전 언어능력 수준에 비해 증가하기는 했으나 또래보다는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인해 향상될 수 있는 표현언어능력이 수용언어 능력보다 언어적 특성상 느리게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 수용·표현언어능력 판정 결과 비교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 판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cNemar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3〉 참조). 검증결과,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의 수용언어능력 판정에서 정상발달 수준에 속한 유아는 22명(73.3%)에서 27명(90.0%)으로 증가하고 발달지체 수준에 속한 유아는 8명(26.7%)에서 3명(10.0%)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비율의 변화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p < .01$ ). 표현언어능력 판정에서는 정상발달 수준에 속한 유아는 17명(56.7%)에서 23명(76.7%)으로 증가하였으며, 발달지체에 속한 유아는 13명(43.3%)에서 7명(23.3%)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다.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의 수용언어능력 판정결과 역시 정상발달 수준에 속한 유아는 19명(63.3%)에서 24명(80.0%)으로 5명(16.7%) 증가하고, 발달지체 수준에 속한 유아는 13명(43.3%)에서 7명(23.3%)으로 6명(20.0%)감소하였다.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반면 표현언어능력에서는 정상발달 수준에 속한 유아가 19명(63.3%)에서 21명(70.0%)으로 증가하고 발달지체수준에 속한 유아가 11명(36.7%)에서 9명(30%)으로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유아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 실시 후 다문화가정 유

〈표 13〉 PRES와 REVT 사전·사후 언어검사 판정결과 비교

		사전검사 (%)		사후검사 (%)		McNemar p
		정상발달	발달지체	정상발달	발달지체	
P R E S	수용 언어	정상발달	22(73.3)	27(90.0)	.002 <sup>a</sup>	
		약간언어발달지체	7(23.3)	2(6.7)		
		언어발달장애	11(36.7)	3(10.0)		
S	표현 언어	정상발달	17(56.7)	23(76.7)	.132 <sup>a</sup>	
		약간언어발달지체	9(30.0)	6(20.0)		
		언어발달장애	4(13.3)	1(3.3)		
R E V T	수용 언어	정상발달	19(63.3)	24(80.0)	.041 <sup>a</sup>	
		약간지체(유의요망)	5(16.7)	2(6.7)		
		어휘능력발달지체	6(20.0)	4(13.3)		
T	표현 언어	정상발달	19(63.3)	21(70.0)	.110 <sup>a</sup>	
		약간지체(유의요망)	6(20.0)	4(13.3)		
		어휘능력발달지체	5(16.7)	5(16.7)		

<sup>a</sup>. 이항분포를 사용함

아의 언어능력이 향상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을 살펴 본 결과, 다문화가정 유아가 일반유아에 비해 언어발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검사(PRES)와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결과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원점수, 언어연령, 백분위 등에서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수준이 더 낮았다.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는 일반가정 영유아보다 신체영역, 언어영역, 또래관계영역에서 높은 수준이지만 언어영역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문무경, 조혜주, 2008), 일반가정의 유아보다 다문화가정 유아가 언어적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황상심, 정옥란, 2008)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PRES에서 26.6%에 해당하는 유아가 수용언어영역에서, 43.3%의 유아가 표현언어영역에서 언어발달 지체 혹은 언어발달장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용·표현어휘력검사 판정결과 수용언어영역과 표현언어영역에서 각각 36.7%의 다문화가정 유아가 언어발달 약간지체 혹은 어휘능력발달지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을 살펴본 오소정, 김영태와 김영란(2009)의 연구결과에서 참여아동의 18%가 지체 혹은 장애를 보였다는 연구와, 대상아동의 30%정도가 약간의 언어발달지체 혹은 언어발달장애로 평가 된 연구(황상심, 정옥란, 2008)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가 언어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부모 중 한 명 혹은 둘 다 외국인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 유아는 양육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언어능력을 함양시키기도 하지만 성인 간 혹은 성인과 보다 나은 또래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상호작용의 방법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키게 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유아의 경우 한국어가 익숙하지 못한 부모의 특성 때문에 부모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호작용을 관찰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어 질적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결핍된 언어적 환경에 놓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중 국제결혼가정의 경우에 경제적 수준이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57.5%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낮은 경제적 수준은 부모의 심리적 문제나 양육태도, 그리고 물리적 환경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아의 지능이나 언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김경희, 황혜정, 1998; 박민주 2005; 박현선, 2008). 즉, 언어적 환경을 포함

한 물리적 환경 등 결핍된 다문화가정의 특징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그림책을 이용한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지 살펴 본 결과, 다문화가정 유아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원점수와 언어연령, 백분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 참여 후 정상 발달수준에 속하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수는 증가하고 언어발달지체 및 장애 수준에 속하는 유아의 수는 감소하였다. 그림책을 이용한 교육이 유아들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김정규, 정남미, 1997; 박찬화, 2010; 양진희, 2010; 윤경선, 2006; 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현은자, 1997; 이경화, 1999)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그림책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흥미와 발달수준을 고려한 그림책은 유아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유아 간 혹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또한 그림책에 나타난 상황이나 사물의 그림이 이야기 맥락과 문자와 연결되면서 유아의 어휘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그림책은 유아에게 제공될 프로그램의 교구 혹은 교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의의는 단순히 그림책을 이용한 중재프로그램 자체보다는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가 실시한 '다문화가족 유아 교육중재프로그램'은 소그룹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교육을 받은 중재교사가 다문화가정 유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였다. 또한 언어중재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그림책은 각 유아의 가정에 전달되고 관련 안내문은 부모의 국적에 따라 다른 언어로 발송되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유아와 함께 동화책을 읽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와 부모가 계속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며 이는 유아의 언어능력 증진뿐만 아니라 애정적인 관계 역시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검사(PRES)와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VT)의 언어연령 및 백분위 결과에 상이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 모두에서 PRES의 언어연령이 REVT의 언어연령보다 높았는데, 이는 PRES의 검사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아의 언어능력을 측정한다는 방법 차이 때문 일 것이다. REVT의 경우 유아가 교사가 제시하는 단어나 어휘를 듣고 올바른 그림을 지적하거나 설명을 하는 일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지만, PRES의 경우 문항에 따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데 실물을 이용하거나 사물을 직접 조작하는 등

보다 활동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유아의 언어능력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유아가 가진 언어능력을 최대한 측정하도록 돕기 때문에 두 검사 간 언어연령에 차이가 나타났을 수 있다.

반면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검사(PRES)보다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VT)의 언어 백분위가 낮았는데 이는 각 검사가 측정하는 언어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REVT가 유아가 알고 있는 어휘력의 수만을 측정하는 것에 비해 PRES는 언어의 인지개념 및 의미, 조음 및 구문, 화용론적 특성을 측정하고 있다. 외국인 부모라는 특성 때문에 언어적 경험이 비교적 결핍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 다문화가정 유아는 일반유아에 비해 언어의 특성을 제대로 습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조음 및 구문론적 특징은 다른 언어적 특징보다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유아와 비교해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수준을 나타내는 백분위의 수치가 더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 습득 정도만을 측정하고자 하는 REVT의 백분위가 PRES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언어중재 프로그램 참여 후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는지 알아 본 결과 두 가지 검사 모두에서 수용언어의 점수와 백분위 증가는 유의미했으나 표현언어의 원점수 증가와 백분위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적 특성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는데, 유아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선택한 단어나 문장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표현언어능력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용언어능력이 당연히 증가되어야 하지만, 수용언어가 증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표현언어능력이 증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52주 프로그램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27주 프로그램으로 축약하여 실행했기 때문에 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보다 효과적으로 유아의 언어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가 이해하고 숙지한 수용언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능력이 골고루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저소득가정 유아를 위해 개발된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다문화가정의 유아와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가 유사한 언어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유아가 속한 가정의 경제

적 수준(김현, 2008; 안현숙, 2007; 이세희, 2006)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김현, 2008; 안현숙, 2007)에서 두 가정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가정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즉, 유아발달에 적합한 놀이감이나 그림책의 제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가정의 유아는 다양한 자극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자녀에게 적당한 교육적 자극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부모는 미안함을 가지기도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가져와 양육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가정 유아가 처한 순환적이고 결핍된 환경을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적 수준과 문화적 상황이 고려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까지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교육적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문화가정 유아와 유사한 발달적 특성을 가진 저소득가정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의 비교집단이 설정되지 않아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VT)의 규준을 이용하여 일반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유아로 구성된 비교집단이 없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다문화가정 유형에 따라 유아의 언어능력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제한이 있다. 물론 유사한 사회적 환경에 노출된 다문화가정 유아를 다수 모집한 데에 어려움이 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비교집단을 설정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결과 수용언어능력에 비해 표현언어능력은 미비하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장시간 결핍된 언어적 환경을 비교적 단기간의 중재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자 했다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 명의 유아에게 두 가지 언어검사를 단기간을 두고 실시함으로써 학습효과가 개입되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차후에 이루어진 언어검사에 대한 유아의 흥미가 떨어져 비교적 소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면접 형식의 검사 도구와 담임교사나 부모가 응답하도록 하는 검사 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효과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용·표현언어 수준을 알아보고, 위스타트 언어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여러 가지 제한점과 보완사항이 존재하긴 하나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및 그들의 특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본 연구가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요구를 기반으로 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금화(2010). 5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읽기, 음운인식 능력에 관한 연구. 대불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계획. <http://www.mest.go.kr/web/1105/ko/board/view.do?bbsId=147&boardSeq=11956>에서 2011년 3월 인출.  
 교육과학기술부(2010a). 다문화가정 학생현황(2010. 4. 출신국 포함). <http://www.mest.go.kr/web/1111/ko/board/view.do?bbsId=150&boardSeq=14710>에서 2011년 3월 인출.  
 교육과학기술부(2010b). 다문화 교육을 위한 지침서. [http://www.mest.go.kr/upload/\\_fileData/Z06\\_18\\_3.pdf](http://www.mest.go.kr/upload/_fileData/Z06_18_3.pdf)에서 2010년 12월 인출.  
 구효진(2009).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인지 사회·정서 발달 수준과 공격성의 구조모형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9(3), 1-21.  
 구효진, 최진선(2007).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6), 43-67.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자녀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숙, 안은영, 이영선(2008).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행동특성과 이들을 위한 교수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8(1), 1-14.  
 김경희, 황혜정(1998). 저소득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관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1), 12-26.  
 김명순, 배선영(2007). **We Start 유아용 기관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 매뉴얼: 제 2-3차년도**. 경기도: We Start 경기도 마을.  
 김명순, 정미라, 배선영(2006). **We Start 유아용 기관방문 교육중재프로그램**. 경기도: We Start 경기도 마을.  
 김영태, 성태제, 이윤경(2003).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발달 척도**.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LT)**.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정규, 정남미(1997). 문학적 접근의 활동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2), 5-27.  
 김현(2008). 영아의 언어능력과 제반변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무경, 조혜주(2008).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방안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박나현(2011).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실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정체성 형성. 경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민주(2005). 가정결혼여부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찬화(2010). 그림책읽기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저소득 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현선(2008). 빈곤지위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 26, 113-137.  
 법률지식정보시스템(2008).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_ain.jsp](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_ain.jsp)에서 2011년 2월 30일 인출.  
 보건복지부(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http://www.mw.go.kr/front/sch/search.jsp>에서 2010년 12월 인출.  
 보건복지부(2010). 2009 보건복지백서. [http://www.mw.go.kr/front/jb/sjb0501vw.jsp?PAR\\_MENU\\_ID=03&MENU\\_ID=030501&BOARD\\_ID=320&BOARD\\_FLAG=00&CONT\\_SEQ=242734&page=1](http://www.mw.go.kr/front/jb/sjb0501vw.jsp?PAR_MENU_ID=03&MENU_ID=030501&BOARD_ID=320&BOARD_FLAG=00&CONT_SEQ=242734&page=1)에서 2011년 4월 인출.  
 안현숙(2007). 가정의 소득수준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영아의 어휘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진희(2010). 문학적 접근에 기초한 아버지 참여활동이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어휘력과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0(2), 5-31.  
 여성가족부(2007).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증장기 지원정책 방안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오소정, 김영태, 김영란(2009).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기초연구. **특수교육**, 8(1), 137-161.  
 위스타트(2011). <http://www.westart.or.kr/page.php?Main=6&sub=1>에서 2011년 4월 20일 인출.  
 윤갑정, 고은경(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구, 26(2), 147-168.

윤경선(2006). 사회적 지식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교수 학습 유형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또래 인기도, 사회 인지 및 언어표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현은자(1997). **유아에게 적절한 그림책: 유아도서추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양서원.

이경화(1999). 문학적 접근을 통한 유아기 언어 학습 방법 모색. **사회과학연구**, 6(1), 213-226.

이세희(2006). 저소득층 가정환경과 영아의 언어발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정하성, 유진이, 이장현(2007). **다문화청소년이해론**. 파주: 양서원.

황상삼, 정옥란(2008).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과 관련된 인 상관연구. **언어치료연구**, 17(1), 81-102.

Alexander, K. L., & Entwisle, D. R.(1988). Achievement in the first 2 years of school: Patterns and proces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Serial No. 218), 53, 2.

Ekstand, L. H.(1976). Adjusment among immigrant

pupils in Sweden.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25, 167-187.

McLoyd, V.(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185-204.

Ramey, S. L., & Ramey, C. T.(1992). Early educational intervention with disadvantaged children - to what effect?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 131-140.

Ramey, S. L., & Ramey, C. T.(2006). Early educational intervention: Principles of effective and sustained benefits from targeted early educational program. In A. K. Dickinson & S. B. Neuman (Eds.), *Handbook of early literacy research*. New York: Guilford.

Taft, R.(1977).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itial adjustment school children in Australi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3, 71-80.

접 수 일 : 2011년 5월 1일

심사시작일 : 2011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1년 6월 28일